

농촌 여성들을 위한 지도 행정과 학습단체와의 협력방안 모색

조 옥 라 (서강대 인류학 교수)

농촌 여성문제가 농업, 농촌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진다. 새로운 WTO체제아래 우리 농촌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농업노동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로 보거나 축소되어진 농업인구 구성상 여성들의 기여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여성들의 역할을 통하여 보다 나은 농촌사회로의 변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제까지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한 여러 지도사업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한국전쟁 후 부락마다 결성된 생활개선구락부가 지역사회개발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단체로서 역할을 시작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 후 새마을 부녀회로 통합된 여성조직들이 실제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지역개발운동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조직들은 관주도적으로 구성되어진 것들로 지도와 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자발성예 기반을 둔 지속적인 조직활동을 끌고 나가는 예는 많지 않다. 이러한 여성조직 활동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촌사회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 그럼 도대체 표면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농촌여성의 조직활동의 필요성과 현실적 제약점 사이에는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며, 왜 이 시점에서 그러한 문제가 새삼스럽게 제기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지도행정과 여성학습단체와의 협력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1. 지도사업과 여성조직

이제까지 여성조직활동이 관주도로 이루어진 배경에는 농촌지역개발에 중요한 자원인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절미운동 등을 통한 저축을 하면서 농사일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농촌지역 전체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논리였다. 여기서 여성들은 잠재적인 "노동력"일 뿐이며, 여성들의 가정 내 주부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시킴으로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적극적"인 여성이면서 관과 집안의 요구에 순종하는 여성상을 동시에 요구한 것이다. 즉, 기존의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체계에서 말단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한 것이다.

여성들의 '지도'된 사업이 자생적인 조직체로서 발전하기 힘든 이유는 이러한 조건아래서 여성들 자신이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업에 관여하기도 힘들며, 여성 스스로의 조직력에 바탕을 둔 조직활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농촌 마을에서 부녀회의 의제들이 대부분 농협이나 면에서 전달되어진 지침을 알리고 실천하는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이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여성들이 조직활동에 소극적인가? 여성들은 지도사업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새마을 부녀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여성들과 현재의 농촌여성이 전혀 다른 것인가? 물론 여성들의 성격도 변화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뿐아니라 여성들의 관심이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집단적인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종류의 사업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가정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그들의 노동력 참가에 따라 어느 정도 증가하여 가부장적 구조가 완화되어감을 여러 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 내 여성역할에 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지위는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관공서출입은 여성들에게 여전히 부담스럽고, 공적 조직들이 남성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사업에 여성들의 "영향력"을

조옥라 : 농촌 여성들을 위한 지도 행정과 학습단체와의 협력방안 모색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적인 여성조직들이 구체적인 생활세계에서 확장되고 있는 여성의 잠재적인 힘을 활용하기 보다는 제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조직활동을 하면 할수록 사회내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어, 의욕을 고취시키기보다는 꺾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농촌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사업이 변화하는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살기 좋은 농촌지역개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현재 농촌여성들이 갖고 있는 욕구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파악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여성들에게 적합한 지원체계의 확립방안을 만들어 가야겠다.

2. 변하는 농촌여성 : 개별화, 다양화, 소외감의 증대

변화하는 농촌사회에서 여성들이 매우 개별화되는 경향이 크다. 농번기에는 농사일로, 농한기에는 이농한 가족원이나 친인척과의 교류 등에 각자 모두 바쁘다. 이들 여성들은 개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농업경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여성, 자녀 교육에 도움을 받으려는 여성,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여성 등 농촌여성들은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들도 여러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이 마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는 여건도 이미 허물어져 버렸다. 대중매체와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여성들의 세계도 이미 마을과 지역단위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여성들도 많지 않고,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단체들의 수도 제한되어 있다.

농촌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도 빨리 변하는 환경속에서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크다.

농업생산과 관련된 정보도 어둡고, 세상변하는 방향에 대한 소식도 대중매체를 통하여 얻기는 하지만 충분치 않은 정보와 현재의 생활과의 괴리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야 무엇을 압니까?"라는 지적에서 이들의 소외감이 드러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소외감이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시여성들과의 직간접의 교류도 농촌여성들에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된다.

젊은층은 새로운 정보와 기술습득을 원하며, 노년층은 공동체 해체 결과로 인한 외로움과 생계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농촌현실이다. 즉 가장 고전적인 "가난"과 소외에서부터 첨단 정보에 대한 갈구까지도 망라한 것이 농촌 여성들의 욕구들이다.

이렇게 계속 분화되어가고 있는 농촌여성들이 "살만한" 농촌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관심영역에 따라, 목적에 따라 소집단을 형성하여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장만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식에 눈뜬 여성들이 공적 조직에서 활동을 하자면 극복해야될 장벽이 너무도 많다. 이미 마을·지역단위에서 약화되어진 공동체 조직에서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면, 군 단위의 공식 조직 속에서 남아있어 여성들의 적극적 시도들을 제한하고 있다.

3. 새로운 지도행정사업

변화하는 농촌에서 지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제는 이제 더 이상 일반 "농촌여성"이라는 대상이 모호해진 것이다. 대신 농업경영인, 농민여성, 농가주부, 농촌주부, 노년층 여성, 젊은 여성들이 존재할 뿐이다. 이들 여성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지원사업의 기본적인 전제부터 변해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지도"의 개념을 정보제공과 재교육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농촌에서 여성들 자신들의 능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욕구와 현실적 제약점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작업을 지도, 행정사업에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업은 구체적인 일의 선택과 추진보다는 "어떻게 정보를 얻고" "어떻게 필요한 작업들을 익혀가는가" 등 기획과 조정의 방향 즉 hardware보다 software에 더 치중하는 "지도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단계를 통하여 협력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여성들이 원하는 바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장만해야 한다.

이제까지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절약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에 치중된 소위 "인력개발"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소득원을 갖고, 어떠한 지역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되기 힘든 시기에 도달했다. 무조건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소득이 보장되는 것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모델은 맞을 수 없다. 도리어 여성들이 원하는 소득원,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상담, 정보 제공의 역할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여건에서 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농촌여성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막연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도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행정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지도사업이 진행되어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중심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료실을 강화하고 전화, 컴퓨터를 통한 문의에 의한 상담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나. 지도, 행정 지원이 단일 사업보다는 여러 유형의 농촌여성에 맞추어서 재기획되어야 한다.

이제 농촌 여성들의 지역별 일반화가 힘들기 때문에 작목별, 계층별, 농업참가 정도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모임들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여성조직들은 규모가 적고, 비교적 동질성이 강하며 지역적인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 이들 조직, 단체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사무실 등의 공간을 지도소, 면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활동보조금을 통하여 기획안을 모아 지도·행정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다. 농촌지역의 복지센터 같은 공간 운영에 이러한 소모임들이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지도자 훈련프로그램을 강화시켜야겠다.

일단 이렇게 조직화된 다양한 "요구"를 평가한 후 거기에 맞는 여러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규모별로 소규모이며, 조직단위의 독자성을 최대한 허용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목표를 위하여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 여성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겠다.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교육에서 여성농민들의 처지를 그리 크게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만을 지나치게 해왔다는 점이다. 가정주부로서의 역할, 여성농업인으로 주로 참여하는 일의 내용, 제한된 교육기회로 인한 습득도의 차이 등등을 고려한 "전문적" 여성농민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기간, 전달방식, 교육환경 등에서 여성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기획이 있어야지 현재와 같이 남성농민들에게 해오던 영농교육을 그대로 여성에게 주는 방식은 적합치 않다고 여겨진다. 두 번째, 환경이나 생활개선과 관련된 여성농민교육이 지나치게 전통적 "여성관"을 전제로 하고 이루어져 있다. 이미 생활상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육은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복고적으로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남녀가 함께 가정,

지역사회를 이루어가는 입장에서 교육내용이 바뀌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가게관리, 외부 기관들과의 교류 등에 관한 일반 사회교육이 첨가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일수록 부부가 또는 남녀 공히 함께 교육받아야될 성격이다.

라. 교육내용에서 초보적인 문장력에서부터 컴퓨터를 통한 통신방법에까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지도사업이 소규모, 집단 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여성들의 욕구는 다양하고, 크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체 기획만 지도, 행정을 통하여 만들고, 지역 내 인력을 활용하여 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여성들 간의 연대가 맺어지면 마을 단위를 넘어서는 사회성을 갖출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도소 또는 행정 기관이 연결가능한 인적 자원에 대한 data base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면과 관련된 교재개발 및 자료를 확보하여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마. 여성상담기능의 강화

농사일과 관련된 육체적 부담은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건소 등에서 건강 상담과 치료가 가능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상담은 현실적으로 여성들 상호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육체적인 것 뿐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불안감 등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조직들의 활발한 활동에는 이러한 건강, 심리, 더 나아가 가족문제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조직단위로의 상담을 지도소에서 주선할 수 있으며, 때로는 모임의 공간에 전문 의료진이나 상담원을 초빙하여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들 여성조직의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도·행정 사업에서 사업목표나 사업대상, 그리고 사업

조옥라 : 농촌 여성들을 위한 지도 행정과 학습단체와의 협력방안 모색

내용상 명확하게 한계가 그어진 것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본다. 여성지도사업은 이제 더이상 지역개발의 하부활동으로 여성조직활동이 지원될 수 없으며, 일반화된 영농교육이나 여성에게만 해왔던 생활교육 등은 그 타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도행정으로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여성중심"으로 기획하면서, 여성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도행정사업이 hardware로서의 성격에서 software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